

# 은행 가계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 금리 오르고 소득 증가 더더...가계 신용위험도 상승 중소기업 대출도 간간해질듯...은행 리스크 관리 영향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등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금리 상승과 더딘 소득 개선세로 가계의 신용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태도는 -8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4분기(-9)부터 3년1분기째 마이너스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26일~12월14일까지 모두 199개 금융기관 여신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것

이다. 0을 기준으로 100과 -100사이에서 플러스(+)면 완화,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는 -20으로 지난해 4분기(-47)에 이어 강화 추세를 나타냈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태도 지수도 -13로 강화 전망이 유지됐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기업 대출 태도지수는 -3으로 지난해 4분기(-3)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 비유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소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지난해 4분기(0)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 신용위험도 높아졌다.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득 개선 가능성이 지연되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0으로 전분기(10)보다 상승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부동산 경기 조정 가능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27)에

이어 27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3으로 나타났다.

대출 수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반대출(10)은 소액 생활자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 수요(20)도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수요는 0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은행권의 대출태도는 상호저축은행(-17), 신용카드회사(-6), 상호금융조합(-38), 생명보험회사(-13) 등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상호저축은행(24), 신용카드회사(13), 상호금융조합(40), 생명보험회사(26) 등 비은행권에서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보험개발원, 수리비 AI자동산출 시스템 개발

1단계 주요사업에 40여억원 투입  
기부터 자동차보험 보상업무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으로 자동차 수리비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추진되는 1단계 주요사업에 40여억원이 투입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일 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AI기반 자동차 견적시스템 뉴 스타트(New Start) AOSA(에이오에스 알파)' 식을 개최하고 7일 이같이 밝혔다.

AOSA(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α)란 AI로 자동차 수리비를 자동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 사진을 기반으로 AI가 손상된 부위의 판독부터 수리비 견적 산출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총회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상승 마감 코스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6.85포인트(1.34%) 상승한 2,037.10으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35포인트(1.26%) 오른 672.84에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 작년 맞춤대출 2870억 증가

전년비 16% 증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대출중개시스템인 맞춤대출서비스의 지난해 증가실적이 28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7년 2470억원 대비 16.2% 증가한 것이다. 이용자 수도 지난해 2만3500명으로 16.6% 늘었다.

실적 증가에 대해 진흥원 측은 "서민금융 현장방문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과 홍보 강화에 따른 인지도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맞춤대출서비스는 3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서민층이 주요 이용 고객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약 14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 대출을 중개했다.

맞춤대출서비스는 진흥원의 맞춤대출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콜센터(전화 1397)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진흥원은 올해 맞춤대출 홈페이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모바일 전용 앱 서비스도 상반기에 제공될 예정이다.

뉴스스



## 담양복합단지 '양우내안에 퍼스트힐' 분양

양우건설, 2개 단지 총 680가구

양우건설(주)은 담양군 담양읍 담양복합단지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을 분양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는 1단지(A1블록) 지하1층~지상12층 7개동, 전용면적 59~95㎡, 총 322가구, 2단지(A2블록) 지하1층~지상 12층 9개동, 전

용면적 59~84㎡, 총 368가구(입대 98가구 포함) 등 2개 단지, 총 680가구다.

청약제도 개편전 분양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적용되며 전매 제한이 없다.

건본주택은 광주시 서구의 지하철 상무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입주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 광주은행 설 명절 中企 특별자금 3000억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최고 30억원 · 금리 1.2% 우대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신규자금 3000억원을 3월31일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2%를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

어줄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신규자금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석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한 광주은행은 신규대출 2158억원, 만기연장 4884억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숭분을 트이게 했다.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황금돼지해 누리세요"

개띠 · 돼지띠에 최대 50% 할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가 운영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다양한 할인 및 현장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현장에서 개띠와 돼지띠 모두에게 본인 대상 패키지권 50% 할인(Big2B 13000원)을 제공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고객 이 방문 시, 직계 가족에 한하여 30% 할인을 2월 28일(목)까지 제공한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또한 1월 한달 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는 꿀꿀 369게임 주말에는 데시벨 게임, 평일에는 게임라 가우 바우보 게임 등 다양한 현장이벤트를 진행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인형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